

정보구조와 결속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전도서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소고

장성길*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목적은 전도서의 정보 배열 방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전도서의 의미(meaning)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언어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텍스트 표상에 그 증거가 드러나 있는 전도서의 담론 지시어와 결속구조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원문 번역과 주해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텍스트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언어 장치들(linguistic devices)의 기능과 역할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담론 지시어는 텍스트의 거시적 구조를 판정하는데 유용하며, 결속구조는 텍스트 구성 성분들의 기능과 의미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키가 된다. 이러한 언어적 장치(devices)들을 가리켜 텍스트의 고유한 특성이라 말한다.

본 논고에서는 연구 범위를 전도서 텍스트로 정하고 지면 관계상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의 구조를 결정하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한 어떠한 어휘적 성분들이 전도서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2. 코헬렛의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전도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독특한 발화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헬렛은 자신이 말하려는 사상이나 중심 개념을 어휘 결속을 통해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킵(Schoors)에 따르면 전도서 전반에 걸쳐 핵심 어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한다.¹⁾ 구약성경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전임강사, 구약학.

1)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A Study of the Language of Qoheleth-PartII Vocabulary*, OLA 143 (Leuven: Peeters, 2004).

내에서 산문체 형식으로 쓰여진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산문체적 시(prose poetry) 양식에 가까운 전도서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에 배경 정보를 생략하고, 그 대신에 핵심 메시지를 압축된 언어로 전달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따라서 단락과 단락 사이에 내용적 흐름이 쉽게 끊어지며, 결속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텍스트 상에 일련의 사상적 체계나 통일된 개념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코헬렛은 자신이 말하려는 발화 내용을 다양한 정보 전달 장치들을 통해 독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1) 격언으로 된 긴 문장을 쓰거나, (2) 압축된 언어로 표현된 짧은 잠언을 즐겨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들은 주로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3) 비교(2:13; 7:6, 12; 9:12; 11:5 etc.), (4) 은유(3:5, 7:1, 5:15-16, 19 etc.), (3) 비유(예, 9:14-15), (4) 알레고리(12:3-4), (5) 수사적 질문들(2:2, 15, 19, 25; 3:9, 21, 22; 4:8, 11; 5:5, 10, 15; 6:8, 11; 7:13, 16, 17; 8:1, 8, 7; 10:10 etc.)과 같은 다양한 문예적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전도서 본문을 내용면에서 분류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것이다. 하나는 코헬렛이 자연과 세상 그리고 인간사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자료이며(1:13-14; 2:12-14; 3:14-16; 4:1-7의 일부; 5:12, 17; 8:9-10, 16-17; 9:11, 13; 10:5 etc.), 다른 한편에서는 코헬렛의 훈계하는 말들이 부각된다(4:17; 5:1-9의 일부, 7:7-21의 일부; 8:2-3; 9:7-10의 일부; 10:4, 20; 11:1-2; 11:8-12:1).²⁾ 특히 전도서의 본론부(1:12-12:7)에 나타나는 발화(utterance)의 특징은 코헬렛 자신의 매우 사적인 체험이나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대한 스스로의 깨달음을 자서전적 형식의 1인칭 선포(1st-person speech)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2.1. 코헬렛의 정보 배열 방식

그렇다면, 전도서의 구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상기한 대로 코헬렛의 스피치는 지혜의 격언들(proverbs)과 코헬렛의 가르침(admonitions)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인칭 화법으로 선포되고 있는 1:12-12:7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텍스트의 구조나 구성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의 텍스트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옥덴(Ogden)에 의하면 이 책 전체를 통해 수렴되어가는 하나의 논리적 과정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 진단한다.³⁾ 그렇다면 전도서가 과연 작은 단편들의 묶음인 것인가? 분명한 것은 전도서

2) 한편, 화자는 코헬렛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기록하고 있다(예, 1:16; 2:1, 15; 3:17, 18; 7:23).

3) G. Ogden, *Qoheleth* (Readings; Sheffield: JSOT Press, 1987), 12.

의 각 단위 별로 주제 전개가 나타나고 있으며, 어휘 결속구조를 통해 단락을 관통하는 코헬렛 자신의 사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게 된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전도서의 윤곽을 그려본다면 1:1^{표제(Title)}, 1:2^{모토(motto)}, 1:3-12:7^{본론}, 12:8^{모토(motto)}, 12:9-14^{에필로그}로 구분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인칭의 변화를 따라 분류해보면 서론(11-11), 본론(1:12-12:8), 결론(12:9-14)으로 구분하여 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1:3-12:7에서 구성의 키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인데, 구조를 나눔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폰조(di Fonzo)는 본론을 7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었고,⁴⁾ 로핑크(Lohfink)는 대차대구법(chiastic structure)으로 구분하였다.⁵⁾ 한편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주제에 따른 새로운 구분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크뤼거(Krüger),⁶⁾ 화이트(Wright)⁷⁾와 크렌쇼(Crenshaw)⁸⁾ 등의 학자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한편, 쉐이버거(Schönberger)⁹⁾는 백하우스(Backhaus)의 가설을 발전시켜 전도서의 구성을 하나의 역동적인 선형적 배열로써(linear-dynamic arrangement) 설명하려 시도한다.¹⁰⁾ 그러면, 코헬렛의 발화 의도를 잘 드러내려면 어떠한 범주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아래의 두 범주가 전도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분들이라 본다.

Type A: 코헬렛의 직접적인 경험 또는 관찰(observation)

Type B: 코헬렛의 가르침 또는 교훈(exhortation)

-
- 4) 프롤로그(1:1-3), 자연과 역사의 허무함(1:4-11), 인생과 그 가치에 있어서의 일반적 허무(1:12-2:26), 인간사의 수수께끼(3:1-6:12), 생명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7:1-11:6), 청년기와 노년기(11:7-12:8), 에필로그(12:9-14). 참조. L. di. Fonzo, *Ecclesiaste* (SB Rome: Marietti 1967), 9-10.
 - 5) N. Lohfink, *Koheleth*, S. McEvenue, tran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2003), 109.
 - 6) T. Krüger, *Qoheleth*, Hermen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Krüger는 주제 흐름을 따라 1:3-12:7을 동일한 레벨에서의 5개의 소 단락(왕과 지혜자, 왕과 하나님[the deity], 가난과 부,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논의, 기회와 덧없음의 관점에서 비쳐지는 삶)으로 구분하고 있다.
 - 7) A. G. Wright, "Additional Numerical Pattern in Qohelet", *CBQ* 45 (1983), 32-43; A. G. Wright, "The Riddle of the Sphinx: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Qohelet", *CBQ* 30 (1968), 313-334.
 - 8) 크렌쇼는 1:4-12:7을 '해 아래 새것이 없다, 왕의 경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 꾀박 당하는 자의 눈물, 격언, 함께함의 유익, 번덕스런 백성, 종교적 의무, 부의 허무함, 잠언 모음, 적당함에 대하여, 구함과 찾음, 왕과 신하, 하나님의 활동과 신비, 죽음의 그림자. 때와 기회, 헛된 지혜, 격언, 위기를 낳는 요인'이라는 일련의 주제들이 묶여 있다고 분석하였다. 참조 J. L. Crenshaw, *Ecclesiaste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7-10, 156-159.
 - 9) F. J. Backhaus, *Denn Zeit und Zufall trifft sie alle: Studien zur Komposition und zum Gottesbild im Buch Qohelet*, BBB83 (Frankfurt, 1993), 212-214.
 - 10)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Wien: Herder, 2004), 11-12.

이러한 범주를 중심으로 전도서 전체 본문의 내용을 각 단락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흐름이 그려진다.

본문	내용분석	화행변화 요소
1:1	표제(Title)	
2	격언(motto)	
3	수사적 질문 ¹¹⁾	(3절) ²³⁾ _____
4-7	자연의 순환과 반복성에 대한 진술(시의 형태)	
8	인간사에 대한 관찰의 결과	
9	결론적 진술	(9절) _____ (2x)
10-11	논증적 가르침	
12 ¹²⁾	배경정보: 코헬렛의 자기신상에 대한 소개	
13-15	관찰을 통한 반성(15절에 격언 인용)	
16-18	고백적 진술(18절에 격언 인용)	
2:1-11	즐거움을 추구함의 덧없음과 만족이 없음	
12-17	지혜와 우매에 대한 관찰(가정적(subjunctive) 진술로 시작) ¹³⁾	(12b) _____
18-23	수고가 헛됨에 대한 반성(reflection) ¹⁴⁾	(22절) _____
24-26	논증적 결론 ¹⁵⁾	
3:1-8	범사에 때가 있음을 관찰	
9	수사적 질문	(9절) ²⁴⁾ _____
10-15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코헬렛의 체험적 깨달음	(15절) ²⁵⁾ _____
16-22	관찰을 통한 반성	(21a,22d) ²⁶⁾ _____
4:1-8	억압(1-3절)과 수고(4-6절)와 의로움(7-9절)에 대한 관찰 ¹⁶⁾	
9-12	연합의 장점에 대한 수고 ¹⁷⁾	
13-16	정치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관찰	
5:1-7	지혜의 훈계(admonition) 형태를 갖춘 명령 화행 ¹⁸⁾	발화 당시의 현재 시점으로 전환(5:1)
8-9	교훈적 권면	5:10-6:9:부와 가난
10-12	잠언들	
13-17	관찰 1: 부와 재물에 대한 부정적 담화	
18-20	관찰 2: 부와 재물에 대한 긍정적 담화	
6:1-6	관찰 3: 부와 재물에 대한 부정적 담화	
7-9	잠언들	
6:10-11	삶에 대한 코헬렛의 교훈 ¹⁹⁾	
7:1-10	지혜와 우매에 대한 교훈 ²⁰⁾	
11-14	지혜의 유익에 대한 교훈	발화 당시의 현재 시점으로의 전환(7:13-14)
15-22	관찰의 결과: 지혜롭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교훈	
23-29	관찰을 통한 깨달음	
8:1	수사적 물음	8:1-17:지혜의 한계에 대한 가르침
2-8	지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권력에 대하여)	
9-15	코헬렛의 관찰과 관점: 악인에 대한 징벌	
16-17	지혜자의 (경험적) 깨달음의 한계	
9:1-6	죽음에 대하여 관찰을 통한 묵상	
7-10	삶의 기쁨에 대한 교훈	_____ (2x)
11-12	기회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관찰	
9:13-10:1	리더십의 강조(세상 나라를 관찰하여 얻은)	
10:2-20	지혜와 우매에 대한 다양한 격언들	
11:1-6	젊은이에게 주는 코헬렛의 교훈 ²¹⁾	
7-8	항상 즐거워하라는 코헬렛의 권면	
9-10	청년에게 주는 코헬렛의 교훈 ²²⁾	발화 당시의 현재 시점으로 전환(11:9)
12:1-7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며 젊은 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권면	
8	1:2의 모토를 재차 반복함	
9-14	후기	

<표.1> 관찰과 교훈이라는 두 범주로의 대화 구조(dialogue structure) 분석.²⁷⁾

분석 결과, 우리는 코헬렛이 말하려는 내용의 원천이 (1) 코헬렛의 개인적 경험과 관찰에 근거를 둔 자료들과 (2) 교훈적 가르침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코헬렛은 이러한 두 가지 범주의 정보들을 적절하게 배열해가면서 독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²⁸⁾ 아울러 상기한 대로 전도서 본문의 정보배열 방식을 이해하려면 인칭과 화행의 변화를 주시하여 본문을 읽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헬렛의 1인칭 담화(1:12-12:7)는 5장 1절(MT 4:17)에서 갑자기 명령형 동사로 화행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카스텔리노(Castellino)는

-
- 11) 3-11절은 3인칭 스피치로 선포되는 내용이다.
 - 12) 1:12-2:26은 왕으로서의 코헬렛의 시각을 통해 비취지는 세상을 조명해 놓은 것이다.
 - 13) 15절은 **וְהָלַךְ**로 시작하며 화자 자신의 개인적 탄식을 기술하고 있다.
 - 14) 22절은 코헬렛이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수사적 물음으로 시작한다.
 - 15) 전도서 2장에 한정하여 볼 때, 24-26절은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고백하는 첫 부분이다.
 - 16) 4장은 ‘**כִּי**-격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구성의 특성이다. 특히 비교급을 사용하여 ‘-보다 -이 더 낫다’라는 뜻의 의미를 지닌 ‘**כִּי** **אֵינִי**’로 표현하고 있다(예, 3:22; 4:3, 6; 6:3; 9:4 등).
 - 17) 10,11,12절은 연속하여 가정절을 이끄는 ‘**אִם**’으로 시작된다.
 - 18) 텍스트의 흐름이 5:1절에서 갑자기 명령 화행으로 변화한다. 전체적으로 **וְ** 또는 **אֲנִי** 형태로 선포가 이어진다.
 - 19) 10절과 12절은 수사적 물음(**מַה**)을 통하여 코헬렛의 생각을 전달한다.
 - 20) 화자는 전도서 7장에서 평행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1, 2, 3, 5, 8, 10, 11, 14, 18, 20절은 **כִּי**-잠언이 연속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반하여 유사한 잠언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전도서 10장에서는 **כִּי**-잠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21) 코헬렛은 5장 서두에서와 같이 11:1, 2, 6에서도 명령형으로 교훈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명령의 이유를 2b와 6b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11:1-6에서는 알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날들에 대한 네 가지 명령을 주고 있다.
 - 22) 9-10절은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코헬렛의 단호한 가르침을 명령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 23) 3절은 인간의 수고에 국한하여 던져지는 질문으로 인간의 수고가 궁극적으로 유익이 없음을 말한다.
 - 24) 3:9의 질문의 특징은 내용면에서 볼 때 앞서 선포된 1:3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 25) 15절은 또 하나의 수사적 물음으로 단락을 마무리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고 깨닫도록 이끌고 있다.
 - 26) 21a절은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논쟁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한편 22절은 수사적 물음으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 27) <표 1>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부분은 대체로 관찰부에 속한다. 이러한 구분은 드 중(De Jong, 1992)의 연구논문에서도 나름의 흐름이 제시되고 있다. 전도서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참조하라, S. de Jong, “A Book of Labour: The Structuring Principle and the Main Theme of the Book of Qohelet”, *JSOT* 54 (1992), 108.
 - 28) 코헬렛의 어투는 위협적이거나 카리스마가 강한 어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정다감하며 설득적인 스타일이 특징이다. 물론 때로는 논쟁적인 화행을 쓰기도 한다. 여기서 논쟁 화법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대화하기 위함이다.
 - 29) 카텔리노(Castellino)는 화행이 바뀌는 5:1에서 하나의 큰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전도서의 구조가 크게 두 부분(1:1-4:16과 5:1[MT 4:17]-12:8)으로 나누고 있다. 참조. G. Castellino, “Qohelet and his Wisdom”, *CBQ* 30 (1988), 15-17.

5장 1절이 메시지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의 주장이 약간의 설득력을 갖는 것은 1:1-4:16의 경우 청자(narratee)가 단지 함축(implied)적으로만 본문에 암시되고 있는데 반하여, 4:17-12:8에서는 청자가 대화 속에 직접 호출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³⁰⁾ 그러나 위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7-12:8절 내에서도 관찰부와 교훈부가 번갈아 교차되고 있으며, 특히 7:13과 11:9에는 명령형 동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기에 전도서 전체의 구조를 5:1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외에도 1968년에 발표된 화이트(Wright)의 연구 논문 역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한다. 화이트는 전도서의 중심 본문을 크게 두 영역(1:12-6:9과 6:10-11:6)으로 구분한다. 그의 관점의 핵심은 6:10-12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³¹⁾ 한편 최근에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전도서의 구문론 분석에 적용한 왈톤(Walton)은 전도서의 1인칭 담화 부분이 4개의 단락(1:1-2:26; 3:1-7:24; 7:25-10:15; 10:16-12:7)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²⁾ 왈톤의 가설의 키는 7:25과 10:16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의 전도서 본문 읽기가 시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2.2. 전도서 본문 읽기를 돕는 언어 장치들(linguistic devices)

2.2.1. 단락 구분 지시어의 활용도

히브리어 원문에 텍스트의 구조를 찾도록 돕는 일반적인 언어 장치로는 담론 지시어(discourse markers)와 단락 구분 지시어(delimitation markers)를 예로 들 수 있다.³³⁾ 맛소라 본문(MT)의 경우, 단락 구분 지시어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세투마(ס)와 페투하(פ)가 있다. 그러나 전도서 본문에는 이러한 단락 구분 지시어가 단지 4회(1:12(פ); 3:2(ס), 9(ס); 9:11(ס))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텍스트 전개 방식에 있어서 화자가 단락 구분 지시어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2.2.2. 담론 지시어의 기능

30) Castellino, "Qohelet and his Wisdom", 21-22.

31) Wright, "The Riddle", 321-324; A. G. Wright, "Additional Numerical Pattern", 32-43.

32) 이러한 거시 구조는 실제로 왈톤이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며, 옥덴(Ogden; 1987: 12)에 따르면 일찍이 캔디널 비(Candinal Bea)가 제시했던 가설이기도 하다. 참조, A. Bea, *Liber Ecclesiastae*,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00 (Rome: Pontificio Institutio Biblico, 1950).

33) 담론 지시어와 단락 구분 지시어는 구문론적 차원(syntactical level)에서 텍스트의 구조를 판정 하도록 돕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로 보고 있다.

담론 지시어(discourse marker)란 구문론 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한 성분으로 텍스트의 구조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적 장치를 말한다. 담론 지시어의 주 기능은 문법적 차원보다는 화용론적 차원에서 발화자의 대화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를 드러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담론 지시어는 본문 안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가며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언어적 장치이다. 히브리어 맛소라(MT) 본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론 공식’(introductory formula)이라 부르는 **וְהָיָה כִּי-אֲמַרְתֶּם**를 예로 들 수 있고, 직접 인용문에 쓰이는 **וְאָמַרְתָּ**가 이러한 기능에 속한다. 그런데 전도서의 경우, 서론 공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분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잘 알려진 대로 전도서 1:1-11의 프롤로그와 12:9-14의 에필로그는 3인칭 화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본문부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וְהָיָה כִּי-אֲמַרְתֶּם**와 같은 전달 장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렇다면 코헬렛은 어떤 발화 장치를 즐겨 쓰는가? 위의 <표1>에서 보는 바, 1:12-12:7의 문장은 (1) 코헬렛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1인칭 화법)이나 (2)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방식(2인칭 화법)을 선호한다. 따라서 전달 공식은 크게 활용도가 없는 반면, 1인칭 화법으로 발화자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말한다’라는 뜻을 지닌 **אֲנִי אֹמֵר** (또는 **אֲנִי בֹרֵךְ**) 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6x: 1:16, 2,1, 15, 3:17; 3:18; 9:16). 그러나 **אֲנִי אֹמֵר**는 큰 단락을 주도하는 지시어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작은 소 단락이나 하나의 절 안에서 구성 성분들 간의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코헬렛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텍스트의 응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일까? 그 기작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속구조 분석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2.3. 전도서의 구성 성분들 간의 결속구조(cohesion)

결속구조란 간단히 말해서 ‘텍스트의 각 성분들을 연결시키는 즉,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법적 성분들이 다른 절이나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³⁴⁾ 따라서 결속구조 분석은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가 어떠한 의미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있다. 텍스트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결속구조 분석을 위한 범주로서 (1) 문법적 결속구조와 (2)어휘적 결속구조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결속구조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속구조는 텍스트의 고유한 특성(property)을 가장 잘

34) Michael Hoey, *Patterns of Lexis i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3-4.

반영해 주는 언어 장치이며, 또한 통사구조의 구성 성분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판정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³⁵⁾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떠한 텍스트가 하나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짜임새 있는 결속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텍스트는 내적 통일성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된다.³⁶⁾

2.3.1. 전도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법적 결속구조(grammatical cohesion)

텍스트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문법적 결속 장치를 지시, 생략, 대치, 접속이라는 네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텍스트를 분석한다. 우선 문법적 결속장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텍스트의 구조나 흐름은 일차적으로 연결어들을 통해서 파악되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전도서의 어순(word order)의 특징을 말한다면, 동사가 문장 서두에 나타나는 VSO로 형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때때로 수사적 의문사(rhetorical question)나 존재 또는 비-존재를 나타내는 불변사들(particles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³⁸⁾ 그리고 연결 불변사(conjunctive particle)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도서 내에서 문장 성분들 간의 결속력을 나타내는 핵심 장치는 불변사로써 וְאֵלֶּיךָ (89x), וְיָ (87x), 그리고 וְהִנֵּה (58x)과 의문사 מָה 와 מַי 이다. 전도서의 경우 『개역』성경에서는 의문문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만, 코헬렛은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מָה / מַי (24x)³⁹⁾와 מַי (17x)⁴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3.1.1. וְאֵלֶּיךָ / וְיָ 의 기능

וְאֵלֶּיךָ 와 וְיָ 는 전도서에 각각 89회, 68회 나타나며, 그 기능은 문장 서두에서 절을 이끄는 경우(예, 5:3,(4), 14; 7:28; 8:4, 11, 12, 16; 11:5)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하나의 절 안에서 내용과 내용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지시 불변사(demonstrative particle)로써 기능한다. 물론 2:11, 4:17, 5:3, 7:14, 8:17에서와 같이 접속사로서의 기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8:5, 7:26에서와 같이 원인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

35) M.A.K. Halliday and R.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1976); Hoey, *Patterns of Lexis*, 3-4.

36) 장성길, “예레미야 30-33장의 결속구조 분석”, 『구약논단』 13:4 (2007), 96.

37) 텍스트언어학회 편,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4), 43-51.

38) 존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불변사로 $\text{וְ$ 를 쓰는데 그 빈도수에 있어서 다른 성경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16x: 예, 1:10; 2:13, 21; 4:8, 9; 5:12; 6:1, 11; 7:15(2x); 8:6, 14(3x); 9:4; 10:5), 비-존재를 나타내는 וְאֵין 의 경우 더 많은 빈도수(44x)를 나타내고 있다.

39) מָה (17x: 1:3, 9(2x); 2:2; 3:9, 15, 22; 5:10, 15; 6:8, 10, 11, 12; 7:24; 8:4, 7; 10:14; 11:2,4; מַי (3x): 2:12, 22; 7:10).

40) 예, 2:19, 25; 3:21,22; 4:8; 5:9; 6:12; 7:13, 24; 8:1, 4, 7; 9:4; 10:14.

고, 7:21에서처럼 결과절을 이끌기도 한다.⁴¹⁾ 분포도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וַיִּשְׁמַע**와 **וַיִּשְׁמַע**의 빈도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과 7-9장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3-5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언급되고 있다.⁴²⁾ 한편 시적(poetic) 양식을 갖추고 있는 다른 시가서 본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도서에 빈도수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⁴³⁾

2.3.1.2. וַיִּשְׁמַע의 기능

불변사 **וַיִּשְׁמַע**는 그 기능에 있어서 (1) 연결 기능과 (2) 강조적 기능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종속 접속사로 기능하며, 후자의 경우 부사적 기능으로 간주된다. 전도서 본문에서 **וַיִּשְׁמַע**의 용례는 문장 서두에서 절을 이끌고 있는 경우가 약 30회 (1/3) 정도이며, 특히 2, 6, 7, 9장에서 문두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⁴⁴⁾

2.3.1.2.1. 종속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1) 인과적 기능

코헬렛은 두 절 간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종속 접속사 **וַיִּשְׁמַע**를 사용한다.⁴⁵⁾ 만일 주절 앞에 **וַיִּשְׁמַע**가 놓여 있다면, **וַיִּשְׁמַע**절은 조건절의 전제절로 쓰이거나 또는 조건절의 이유를 말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주절+**וַיִּשְׁמַע**’ 형식은 목적절을 이끄는 경우이거나 주절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할 때에 **וַיִּשְׁמַע**절은 주절 뒤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주장 또는 논쟁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도서 2:10과 12:5의 경우, 화자는 ‘주절+**וַיִּשְׁמַע**’ 형식을 통하여 화자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1인칭 화법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7:6의 경우에는 ‘**וַיִּשְׁמַע**+주절’ 형식을 통하여 두 절 간의 논리적인 인과적 연결성을 만들어낸다.

(2) 논리적 결과

두 절 간의 논리적인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을 추론해 가는 경우에도 **וַיִּשְׁמַע**절이 사용된다(예, 전 9:3b, 9:11; [참조 1:18; 8:17]).

41)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A Study of the Language of Qoheleth*, OLA 41 (Leuven: Peeters, 1992), 136-149.

42) Bo Isaksson, *Studies in the Language of Qoheleth*, Studia Semitica Upsaliensia (Uppsala: distributed by Almqvist & Wiksell, 1987), 148-152.

43) 다른 시가서에 나타나는 **וַיִּשְׁמַע**의 빈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잠언[19x], 욥기[43x], 시편[111x]).

44) 예, 전 1:18; 2:16, 22, 23, 25, 26; 3:19; 4:10, 14; 5:2, 6, 19; 6:4, 8, 11, 12; 7:6, 7, 12, 20, 22; 8:6, 7; 9:1, 4, 5, 12; 11:8; 12:14.

45) 예, 2:10, 16, 17, 18; 3:19a, 22c; 4:4, 10, 14, 17; 5:1, 2, 3, 5, 17; 6:4; 7:3, 6, 9, 10, 12, 13, 22; 8:6, 7b, 11, 16b; 9:4c, 5ab, 7b, 9c, 10b; 10:4c; 11:10c; 12:3c, 5d, 13.

2.3.1.2.2.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적 기능

상기한 바와 같이 불변사 **יָ**는 종속 접속사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강조(emphatic), 확인, 또는 강화 기능으로도 쓰인다. 이러한 경우 불변사 **יָ**는 네(yes) 또는 참으로(truly, indeed)로 번역된다. 그러나 전도서의 경우 **יָ**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로핑크와 크렌쇼는 불변사 **יָ**를 보통 for로 번역하고 있고, 머피, 옥덴 그리고 쉐버거는 **יָ**를 강조적 용법으로 번역한다. 특히 전도서 2:12; 21-23; 26; 3:19g; 5:6, 19; 6:8; 7:7, 18, 20; 8:7a, 15, 17; 9:1; 11:8에서 강조적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⁴⁶⁾ 특히 8:17-9:1에서 9:1이 대표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본문이다. 라우하(Lauha)에 따르면 9:1은 8:16-17과 논리적인 관련성 전혀 없으며 완전히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본다.⁴⁷⁾ 그러나 로핑크와 크렌쇼는 앞 단락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for로 번역하여 읽고 있다.⁴⁸⁾ 이들과 비슷한 시각에서 폭스(Fox)도 앞 단락과 느슨하게 연결된 인과적 불변사로 읽기를 시도한다. 그런데 반하여 롱맨(Longman)은 분명하게 강조적 형태(indeed로 번역)로 본문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의 단언적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⁹⁾ 그와 유사하게 머피와 옥덴 역시 강조적 용법으로 읽고 있으며,⁵⁰⁾ 쉐버거의 경우에도 강조 형태인 Ja로 번역하고 있다.⁵¹⁾ 결국 해석의 키는 8:16-17이 9:1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앞 단락과 아무 연관 없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때에는 강조의 기능으로 읽을 수 있지만, 8:16-17과의 인과적 관계로 읽을 때는 for로 읽게 된다. 필자는 인과적 연결성도 개연성이 없지는 않으나, 강조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⁵²⁾ 한편 9:4의 서두에 쓰인 **יָ** 역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크렌쇼의 경우, 9:4은 앞 단락과의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여 for로 번역하지만,⁵³⁾ 폭스나 머피는 강조의 시각으로 보아서 indeed로 번역하고 있으며, 쉐버거는 역접(doch)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2.3.1.2.3. **אֲ** **יָ**의 기능

46)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103-110.

47) A. Lauha, *Kohelet*, BKATXIX (Neukirchen-Vluyn: Neukrichener Verlag, 1978), 166.

48) N. Lohfink, *Koheleth*, 109; J. L. Crenshaw, *Ecclesiastes*, 156-159.

49) T.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NICOT (Grand Rapid: Eerdmans, 1998), 224.

50) R. Murphy, *Ecclesiastes*, WBC 23A (Dallas: Word, 1992), 90; G. Ogden, "Qoheletix1-16", *VT XXXII*, 2 (1982), 58-60.

51)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439.

52)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108.

53) J. L. Crenshaw, *Ecclesiastes*, 158; 참조, 김희보, 『전도서』(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8), 441.

אֵל은 전도서에 5번 쓰이고 있는데 이유나 강조의 형태보다는 일반적으로 ‘...을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 번역된다(예, 3:12; 4:10; 5:10; 8:15; 11:8).

2.3.1.3. אֵל의 기능

אֵל은⁵⁴⁾ 전도서에 나타나는 불변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수(58x)를 나타낸다. 전도서 본문에 나타나는 אֵל의 다양한 용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덧붙이는(additive) 기능⁵⁵⁾

(2:7-8) ...אֵל לִי כִנְסוּתִי...אֵל...קְנִיתִי... (코헬렛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진술)

(3:11) ...אֵל אֶת־הָעֵלָם נִתַּן... (사실적 진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선포)

b. 초점(focus) 기능

(2:1; cf. 7:14) ...וְרֵאָה בְּטוֹב וְהִנֵּה גַם־הוּא הִבָּל... (명령형+진술-내용 첨가로 기능)

(2:19; cf. 2:21; 7:6) ...וּמָנִי...וְיֹשֵׁ לְטֹ...גַם־זֶה הִבָּל... (수사적 물음+인지 양태(epistemic modality)+אֵל)

(7:21) ...אֶל־תִּתֵּן לִבְךָ... (객관적 진술+명령형(마음을 두지 말라)⁵⁶⁾

(예, 10:20; 12:5(문장 서두에서 명령형 동사를 이끌고 있다)

(9:11) ...לֹא...וְגַם לֹא...וְגַם לֹא...וְגַם לֹא... (부정어와 함께 점진적인 강조를 나타낸다: That not...yet neither...yet nor...yet nor...)

c. 부정어(negative)와 함께 쓰이는 경우(예, 1:11; 4:8, 16; 9:12)

(1:11) ...אֵין...וְגַם (not...either...) 내용 첨가의 기능(등위 접속사와 함께).

d. 인식 동사와 함께 초점으로 기능: (예, 1:17; 8:10, 12, 14)

(1:17) ...יִדְעִיתִי...וְגַם־זֶה (qatal)...(관계 대명사וְ와 함께)

e. אֵל의 기능: (예, 4:11; 8:17)

(4:11) ...אֵל...אֵל... (종속 접속사+조건절을 이끄는 불변사 אֵל...אֵל+조건절을 이끄는 불변사 אֵל...)

f. 문장 서두에서 절을 이끄는 경우: (예, 5:15-16; 6:5; 9:13; 10:3)

(5:15-16) ...וְגַם^{16:1}...וְגַם־זֶה^{5:15}... (also-so-also: 14절의 진술에 내용을 연이어서 덧붙이는 기능)

g. 반의적(adversative) 기능: (예, 6:7)

54) 예, 전 1:11, 17; 2:1, 7, 8, 14, 15, 19, 21, 23, 24, 26; 3:11, 13; 4:4, 8, 11, 14, 16; 5:9, 15, 16, 18; 6:3, 5, 7, 9; 7:6, 14, 18, 21, 22; 8:10, 12, 14, 16, 17; 9:1, 3, 6, 11, 12, 13; 10:3, 20; 11:2; 12:5(총 58x).

55) 예, 2:14, 15, 23, 24, 26; 4:4, 14; 5:9, 18; 6:3, 10; 7:18; 8:16; 9:3; 11:2.

56) 여기서 אֵל은 명령형을 이끌고 있다.

(6:7) …לֹא תִמְלֹא: הַנֶּפֶשׁ הַגִּבּוֹר לְפִיָּהּ…(의미상으로 앞 단락의 주장에 대하여 **גַּבּוֹר**은 반대되는 생각)

h. both a and b 구조: (예, 7:22)

(7:22) …כִּי…(두 절의 내용을 의미상 동등한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기능)

i. either a or b: (예, 9:6)

(9:1) …אֲהַבְּהָ גַּבְרָה גִּבּוֹרָה שְׂנֵאָהּ…(두 개념을 동등 레벨에서 연결시킨 경우)

라뷰샤게(Labuschage)에 따르면 **גַּבּוֹר**의 본래의 기능은 강조를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⁵⁷⁾ 한편 무라오카(Muraoka)에 따르면 단순한 첨가 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⁵⁸⁾ 위의 분석 자료에서 보듯이 불변사 **גַּבּוֹר**은 접속사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대체로 종속 접속사나 등위 접속사와 함께 쓰인다. 한편 문장 자체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문장 서두에서 강조형태로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⁵⁹⁾ 한편 메르베(Merwe)는 **גַּבּוֹר**의 기능에 대한 그의 학위 논문에서 **גַּבּוֹר**은 본래 새로운 정보를 첨부하는 기능이 두드러지며, 동시에 화자의 발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⁶⁰⁾ 특히 메르베는 **גַּבּוֹר**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인지양태(epistemic modality)를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하였다.⁶¹⁾

2.3.1.4. 소결론

문법적 차원에서 전도서의 결속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도서 저자는 1:12-12:7에서 일반적인 서론공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1:12-12:7의 본문은 대체로 1인칭 및 2인칭 화법으로 고르게 정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 3의 화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서론 공식 없이도 단락 구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대신에 관계 대명사나 등위 접속사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종속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절과 절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조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코헬렛은 **וְ/וְ**, **כִּי**와 **גַּבּוֹר**을 문장 서두에 적절하게 배열하여 내용을 이

57) C. J. Labuschage, "The emphasizing particle GAM and its connotations", *Studia Biblica et Semitica* (1966), 193-203.

58) T. Muraoka.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Magnes Press, 1985), 143-145.

59) 참조,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128-134.

60) C. H. J. van der Merwe, *The Old Hebrew Particle Gam: A Syntactic-semantic Description of Gam in Gn-2Kg* (St. Ottilien: EOS + Druck St. Ottilien, 1990), 198-199.

61) 용례를 따라 분류하면, (1) 종속접속사나 등위접속사와 함께 기존의 사상이나 생각 속에 무엇이든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경우(type a, e, h, i), (2) 의미상 부정적인 정보와 함께 쓰이는 경우(type c와 g), (3) 강조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type b와 d), (4) 2:21과 7:6의 경우에는 인지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간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중심 개념들을 이끌어내는 어휘적 성분들에 대한 논의와 주제적 통일성 연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2.3.2. 전도서의 어휘 결속구조와 개념적 통일성의 상관성

2.3.2.1. 어휘 결속구조의 개념적 이해

‘어휘 결속구조’(lexical cohesion)란 두 개 이상의 문장 속에서 특정한 어휘가 반복되거나 의미상 결속되어 있는 텍스트의 특성을 가리킨다. 앞서 살펴보았던 담론 지시어와 문법적 결속구조는 구문론 차원에서 텍스트의 구성 성분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이 있었다면, 어휘 결속구조는 텍스트의 구성 성분(정보)들이 주어진 단락 속에서 어떻게 결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휘 결속성을 (1) 어휘 반복과 (2) 연어 관계를 통해 분석해 낸다.⁶²⁾ 어휘 반복은 비교적 작은 담론 단위에서 중심 단어들간의 연결성을 가리키며, 연어 관계는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긴 사슬로 연결된 의미관계의 네트워크를 말한다.⁶³⁾ 전도서는 무엇보다 대조와 비교를 통한 메시지 전달 방식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부와 가난,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 지혜와 어리석음, 의와 불의와 같은 주제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들을 엮어가면서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이끌어가는 성분들은 무엇인가? 몇몇 중심 어휘들을 살펴보면, 우선 ‘헛됨’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헤벨(הֶבֶל)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우레우트 루아호’(וּרְעוּת לְרוּחַ) ⁶⁴⁾, 그리고 ‘해 아래서’(תַּחַת הַשָּׁמַיִם)라는 부사구를 들 수 있다. 코헬렛은 이러한 어휘군에 속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삶의 부정적 차원, 즉 쾌락, 수고, 지혜의 헛됨과 무가치함을 강조하려 한다. 그와 동시에 코헬렛은 하나의 주제 단위 내에서 그의 진술이 최절정에 이르는 순간, 짧은 몇 마디의 말로써 삶의 긍정적 가치를 진술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거시적 관점에서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끄는 몇몇 핵심 어휘들을 대표적으로 선별하여 분석해 본다.

2.3.2.2. 삶의 부정적 차원을 드러내는 어휘들

2.3.2.2.1. הֶבֶל(헤벨)

62) 광성희, 『번역입문』(서울: 이지북스, 2006), 88-89.

63) 이러한 논의는 화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텍스트 상에 기술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 간의 상관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어휘 결속의 매듭(cohesive ties)을 만들어 두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논리성이 있는 텍스트는 그 나름의 결속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이 텍스트 내에서의 주제의 변환이나 의미의 통일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64) וּרְעוּת לְרוּחַ는 동사 없는 절(verbless clause)로만 이루어져 있다.

히브리어 맛소라 텍스트에서 הַבֵּל이라는 어근을 가진 명사는 총 73회 사용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전도서에만 38번 언급된다.⁶⁵⁾ 구문론 상에서 הַבֵּל의 용례의 특징은 하나의 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전도서 본문에는 대체로 הַבֵּל הוּא/הִיא (וְהַבֵּל) “(보라, 물론) 이것은 덧없다”라는 복합형식으로 기술되는 것이 특징이다(예, 2:1, 15, 19, 21, 23, 26; 4:4, 8, 16; 6:2, 9; 7:6; 8:10, 14). הַבֵּל이라는 명사는 전도서 본문에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 הַבֵּל은 코헬렛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지만, 6장 이후에는 교훈과 가르침을 위하여 הַבֵּל이 사용된다(예, 6:9-12과 8:10, 14; 9:9; 11:8, 10). 한편 빈도수를 보면 2, 4, 6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7, 8, 9장에서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9:9-11:8에서는 הַבֵּל이라는 단어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⁶⁶⁾ 무엇보다 1장과 12장에서 הַבֵּל은 전도서 전체의 화두를 여는 대화의 창(하나의 모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작은 소 단락마다 절정에 이르는 시점(예, 2, 11, 17, 23)에서 코헬렛은 자신의 관찰과 경험의 결과로 분석된 삶의 무의함을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3:16-19에서는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인간이나 짐승이 동일하다는 하나의 논쟁을 이끌어가는 헛됨을 말하고 있으며, 4:7-8에서는 형제도 없이 혼자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상정하고 삶의 무의함을 논하고 있다. 8:14 역시 삶이 수수께끼 같음을 나타내고자 הַבֵּל을 쓰고 있다.⁶⁷⁾

2.3.2.2.2. וְרָעוּתָּהּ (우레우트 루아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전도서에만 나타나는 표현(7x)으로 언제나 הַבֵּל과 함께 쓰인다(1:14; 2:11, 17, 26; 4:4, 6; 6:9).⁶⁸⁾ 코헬렛은 전략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덧붙음으로써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한 세상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어리석고, 쓸모없는가를 강조한다.

2.3.2.2.3. תַּחַת הַשָּׁמַיִם (타하트 하샤메쉬)

마찬가지로 ‘해 아래에서(תַּחַת הַשָּׁמַיִם)’라는 부사구 역시 구약 성경에서 전도

65) הַבֵּל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어 번역 성경에 vanity((N)KJV), emptiness(NEB), futility(REB와 JB), meaningless(NIV), useless(GNB)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vapour’, ‘nothingness’의 뜻을 지니고 있다.

66) D. Ingram, *Ambiguity in Ecclesiastes* (London: T&T Clark, 2006), 126-129.

67)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הַבֵּל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메타포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참조. D.B. Miller, “Qohelet’s Symbolic Use of הַבֵּל”, *JBL* 117:3 (1998), 473-454; C.F. Melchert, *Wise Teaching*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8), 117.

68) וְרָעוּתָּהּ (루아흐)라는 어휘는 전도서에 총 24회 나타나는데, 그 중에 8회는 인간과 동물에게 사용되고 있고, 그 나머지(16x)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서에만 어휘이다(29x). 따라서 **הַשְׁמָוָה הַזֶּה**는 전도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라 말할 수 있다.⁶⁹⁾ 코헬렛은 이 부사구를 일반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 그리고 사고 방식을 전인적으로 관찰하는 상황에 적용시킨다.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땅 위에(עַל-הָאָרֶץ)**’라는 말과 유사하다(5:1).⁷⁰⁾ ‘해 아래에서’라는 부사구를 언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인생의 덧없음과 코헬렛이 관찰한 삶의 부정적 차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5:17; 8:15, 17; 9:9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특히 8:15 β 와 17절 그리고 9:9 α 에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비추어 설명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 기능한다. 반면에 1:3과 2:22, 그리고 6:12의 경우에는 청중들을 향하여 수사적 물음을 던지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언급되는 경우에 속한다.

2.3.2.2.4. מוֹת/מוֹת(무트/마웨트)

코헬렛은 죽음을 가리키는 동사 **מוֹת**(예, 2:16; [3:2, 19[부정사]]; 4:2)와 명사 **מוֹת**(예, 4:2; 7:1, 26; 8:8; [9:3, 4, 5[분사형태]]; 10:1)를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⁷¹⁾ 그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해 아래에서 인간이 수고하여 이루어 낸 모든 성취를 허무하게 만드는 인간의 필연적 한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코헬렛의 초점은 죽음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비교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살아 있음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전도서 텍스트 내에서 죽음이라는 개념은 거시적 차원에서 기능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단위 내에서 코헬렛의 발화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이 우선적이다. 일례로, 2:12-17에서 코헬렛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혜의 한계를 실감나게 느끼도록 하고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별이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관찰의 결과를 피력하고 있다(참조, 전 8:8; 9:2-3). 유사한 시각에서 3:19에서도 인간의 죽음을 짐승의 죽음에 비교하였을 때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을 지적한다. 한편 7:1은 ‘...보다 더 낫다’라는 비교 구문의 틀 안에

69) 예, 1:3, 9, 14; 2:11, 17, 18, 19, 20, 22; 3:16; 4:1, 3, 7, 15; 5:12, 17; 6:1, 12; 8:9, 15(2x), 17; 9:3, 6, 9(2x), 11, 13; 10:5.

70) 어휘 결속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해 아래에서’라는 부사구와 비슷한 의미로 ‘**땅 위에서(עַל-הָאָרֶץ)**’라는 부사구가 나타난다(예, 5:1; 8:14, 16; 10:7; 11:2, 3; 12:7). 특히 5:1에서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 외의 본문에서는 불확실함 속에서 인간이 행하는 부정적인 일들을 묘사하게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12:7은 사후에 먼지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71)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A Study of the Language of Qoheleth-PartII Vocabulary*, OLA 143; UITGEVERIJ (Leuven: Peeters, 2004), 205-207.

서 선한이름//기름 그리고 죽는날//출생한 날을 서로 비교하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는 아이러니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9:2-3에서 코헬렛은 선인과 악인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4-5절로 넘어가면 그는 결코 죽음을 예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살아 있는 기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설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3.2.3. 삶의 긍정적 차원을 묘사하는 어휘들

전도서 전반에 걸쳐 화자는 삶의 긍정적 가치를 ‘먹고 마시며 수고함’(2:24; 5:18; 8:15), ‘분복’(3:22; 9:9), ‘좋은 상’(4:9), ‘삼겹줄’(4:12), ‘노동’(5:12상), ‘하나님의 선물’(3:13/5:19), ‘마음’(7:3), ‘지혜’(7:11,12,19; 8:1; 9:18; 10:10),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7:18), ‘산 자’(9:4), ‘하나님의 기쁨’(9:7), ‘지혜자의 가치’(9:18; 10:12상), ‘빛’(11:7), ‘삶’(11:8상) 등과 같은 주제들의 응집성을 통하여 이끌어 낸다.

2.3.2.3.1. טוב(토브)

טוב 역시 전도서의 중심 메시지를 이끄는 핵심 어휘에 속하며, 빈도수가 54회 나타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특히 טוב는 구문론 상에서 세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다.⁷²⁾

1) ‘...보다 더 낫다’라는 뜻의 מן טוב(토브-민)의 잠언 형식의 문장

מן טוב 형식은 다양한 본문 속에 이용된다(예, 4:3, 6, 9, 13; 5:4; 6:3, 9; 7:1, 2, 3, 5, 8; 9:4, 16, 18). 잠언에서 מן טוב는 두 평행절의 비교를 통해 진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할 때에 쓰는 대표적인 논리전개 방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서 5, 6, 7장의 경우 잠언서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코헬렛의 가르침을 מן טוב 형식을 빌어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4장에서는 삶에 대한 관찰과 그 목상을 담고 있는 본문 속에 מן טוב 형식이 사용된 경우이다. 특히 4장과 7장에서는 טוב가 문두에 놓이는 경향이 강하다.

2) 실생활에 적용하여 교훈하는 경우

이 경우에 형용사 טוב는 וְטוֹב 동사와 함께 ‘낙을 누리다(『개역』)’라는 뜻으로 번역된다(예, 2:1, 24; 3:13; 5:17; 6:6). 그 가운데 2:1의 경우 טוב는 전치사 וְ 함께 쓰이고 있으며, 동시에 명령형 동사 וְטוֹב를 통하여 코헬렛이 자신을 향하여 의지적 결단을 명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24절의 טוב는 전치사 없이 직접

72) Ibid., 27-44; Ingram, *Ambiguity*, 169-249.

כֹּהֵן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3:13에서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치기 위해 쓰이고 있다. 또한 5:17과 6:6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형 הַכֹּהֵן가 쓰인다. 5:17에서는 연계형 부정사 형태와 함께 ‘낙을 누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한편 6:8에서는 5:17과 유사하게 명사 형태가 쓰이고 있으나 어순이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명사형 הַכֹּהֵן가 강조되어 문두로 나아가고 이어서 부정어-동사 순으로 문장이 이어져 간다.

3) אֵין-טוֹב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אֵין-טוֹב 형식은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편에서는 מִן טוֹב의 변형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⁷³⁾ 이 범주에 속하는 경우, 코헬렛은 해 아래에서 인간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평가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2.3.2.3.2. רָאָה, שָׂתָה, אָכַל / שָׂמַח (חֵלֶק)

코헬렛은 일과 성취 속에 허무함이 도사리고 있듯이 모든 인생은 각자가 누릴 분복(즐거움)이 또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2:24-26; 3:10-15, 22b; 5:17-19; 8:14-15; 9:7-10; 11:7-12:1).⁷⁴⁾ 여기서 코헬렛은 분복, 즉 ‘하나님의 선물’(מַתָּה: 마타트)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먹고(אָכַל), 마시고(שָׂתָה), 자신이 수고하여 얻는 선을 누리는(רָאָ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⁷⁵⁾ 특징적인 것은 빈도수는 많지 않아도 어휘가 전도서 본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나며(cf. 2:24a; 3:12, 22a; 5:17; 8:15a; 9:7-9a; 11:7-12:1a), 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절정의 순간에 코헬렛은 긴 설명 없이 ‘이것이 분복이다(כי 후 헬케카: כִּי הוּא חֵלֶק)’라는 짧은 선언으로 하나의 주제 단위를 마무리하고 있다(참조, 3:22b; 5:17d; 9:9c).

2.3.2.3.3. יָרָא(야레)

‘경외하다’란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יָרָא 또한 빈도수는 적지만 코헬렛이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심 어휘군에 속한다.⁷⁶⁾ 본문 3:14; 5:6; 7:18; 8:12; 12:13에서 코헬렛은 삶의 행복과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특히 יָרָא의 용례는 다양한 화행(speech-act)을 통해 표현된다.

73) Ingram, *Ambiguity*, 175-177.

74) W. H. Anderson, “A Critique of the Standard Interpretations of the Joy Statements in Qoheleth”, *JNSL* 27:2 (2002), 57-75.

75) R. N. Whybray, “Qoheleth, Preacher of Joy”, *JSOT* 23 (1982), 87-91.

76) A. Schoors, A. Schoors,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197-198.

3:14에서는 ‘하나님(행위의 주체)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5:6의 경우(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 화행이 쓰이고 있다. 또 한편 7:18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분사 형태)는 갈등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분사 형태)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8:12). 그리고 마지막 12:13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 화행으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2.3.2.4. חָכְמָה(호크마)/חַכְמָה(하캄)

지혜/지혜자로 번역되고 있는 חָכְמָה/חַכְמָה은 전도서에 각각 28회/25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1:12-2:26과 7-9장에 한정되어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חָכְמָה는 이해력을 얻는 수단을 의미하거나 지식, 또는 도구를 의미한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중립적이다.⁷⁷⁾ 코헬렛은 지혜 얻기를 사모하였으며(1:18-19; 12:9), 지혜가 어리석음보다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4:13; 7:4). 그러나 인간의 지혜(חָכְמָה)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특히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9:11, 16-18).

2.3.2.4.1. 소결론: 결속성과 주제의 통일성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전도서의 텍스트의 흐름을 좌우하는 몇몇 핵심 어휘들의 결속구조와 그 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앞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도서의 내용이 크게 관찰부과 교훈부로 엮여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다음 단계로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끌고 있는 핵심 어휘들이 어떻게 주제의 결속을 이끌어 내는가를 ‘부정-긍정’의 어휘들로 구분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삶의 한계와 덧없음을 강조하는 어휘들이 텍스트 표면에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헬렛은 삶의 긍정적 차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한다.

3. 나가는 말

위의 분석 결과 우리는 전도서의 의미(meaning) 분석에로 나아가기에 앞서 코헬렛의 전략적인 글쓰기 방식과 결속구조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

77)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99), 72.

하게 된다.

첫째, 전도서의 정보구조를 보면 코헬렛은 긴 격언이나 짧은 잠언 또는 비교, 은유, 알레고리와 같은 다양한 수사적 장치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발화 의도를 나타낸다.

둘째, 코헬렛은 짧은 담화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 지시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달공식은 텍스트의 표층구조 위에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며, 지시어들을 대신하여 독자들이 소 단락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문법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장치들을 새겨두고 있다. 예를 들면 וְעַתָּה/וְעַתָּה , כִּי , מֵעַתָּה 과 같은 종속 접속사나 부사구를 통하여 각 절을 연결시켜 메시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셋째, 히브리 시 형식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어휘적 결속구조 분석을 통하여 전도서의 주제 흐름을 주도하는 중심 어휘들을 찾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결속구조나 주제의 흐름에 대한 연구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로 기여하게 되며, 또한 화자의 발화 의도를 찾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담론 지시어와 결속구조 분석의 기초 위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화행(speech-act) 분석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Keywords)

전도서, 정보구조, 담론 지시어, 문법적 결속구조, 어휘 결속구조.

Qoheleth, Information Structure, Discourse Marker, Grammatical Cohesion, Lexical cohesion.

(투고 일자: 2009. 8. 4, 심사 일자: 2009. 9. 14, 게재 확정 일자: 2009. 9. 14.)

<참고문헌>(References)

- 곽성희, 『번역입문』, 서울: 이지북스, 2006.
- 고영근, 『텍스트 이론』, 서울: 아르케, 1999.
- 장성길, “예레미야 30-33장의 결속구조 분석”, 『구약논단』 제 13권 4호, (2007), 92-111.
- 텍스트언어학회 편,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4.
- Anderson, W. H., “A Critique of the Standard Interpretations of the Joy Statements in Qoheleth”, *JNSL* 27/2 (2002), 57-75.
-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1962.
- Backhaus, F. J., *Denn Zeit und Zufell trifft sie alle: Studien zur Komposition und zum Gottesbild im Buch Qohelet*, BBB 83: Frankfurt, 1993.
- Bea, A., *Liber Ecclesiastae*,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100, Rome: Pontificio Institutio Biblico, 1950.
- Beaugrande, R. A. de, & Dressler, W., *Introduction to TextLinguistics*, London; New York: Longman, 1981.
- Brinton, L. J.,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6.
- Castellino, G., “Qohelet and his Wisdom”, *CBQ* 30 (1988), 15-17.
- Crenshaw, J. L., *Ecclesiaste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 Fox, M. V.,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99.
- Halliday, M. A. K., and Hasan, R.,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1976.
- Hoey, M., *Patterns of Lexis i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Ingram, D., *Ambiguity in Ecclesiastes*, London: T&T Clark, 2006.
- Isaksson, Bo, *Studies in the Language of Qoheleth*, Studia Semitica Upsaliensia, Uppsala: distributed by Almqvist & Wiksell, 1987.
- Jong, S. de., “A Book of Labour: The Structuring Principle and the Main Theme of the Book of Qohelet”, *JSOT* 54 (1992), 107-116.
- Krüger, T., *Qoheleth*, Hermen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Labuschage, C. J., “The emphasizing particle GAM and its connotations”, *Studia Biblica et Semitica* (1966), 193-203.

- Lauha, A., *Kohelet*, BKATXIX, Neukirchen-Vluyn, 1978.
- Loader, J. A., *Polar Structures in the Book of Qohelet*, *Beiheft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Berlin: W. de Gruyter, 1979.
- Lohfink, N., *Koheleth*, S. McEvenue, tran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2003.
- Longman III, T., *The Book of Ecclesiastes*, NICOT, Grand Rapid: Eerdmans, 1998.
- Melchert, C. F., *Wise Teaching*,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8.
- Miller, D. B., “Qohelet’s Symbolic Use of הבל”, *JBL* 117: 3 (1998), 473-454.
- Van der Merwe, C. H. J., *The Old Hebrew Particle Gam: A Syntactic-semantic Description of Gam in Gn-2Kg*, St. Ottilien: EOS + Druck St. Ottilien, 1990.
- Muraoka. T.,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Magnes Press, 1985.
- Murphy, R., *Ecclesiastes*, WBC 23A, Dallas: Word, 1992.
- Ogden, G., *Qoheleth*, Readings; Sheffield: JSOT Press, 1987.
- Ogden, G., “Qoheletix1-16”, *VT XXXII* 2 (1982), 58-60.
- Schiffrin D.,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choors, A.,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A Study of the Language of Qoheleth*, OLA 41, Leuven: Peeters, 1992.
- Schoors, A., *The Preacher sought to find Pleasing Words: A Study of the Language of Qoheleth-PartII Vocabulary*, OLA 143, Leuven: Peeters, 2004.
- Schwienhorst-Schönberger, L., *Kohelet*, Wien: Herder, 2004.
- Whybray, R. N., “Qoheleth, Preacher of Joy”, *JSOT* 23 (1982), 87-98.
- Wright, A. G., “Additional Numerical Pattern in Qohelet”, *CBQ* 45 (1983), 32-43.
- Wright, A. G., “The Riddle of the Sphinx: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Qohelet”, *CBQ* 30 (1968), 313-334.

<Abstract>

A Study of the Linguistic Features of Ecclesiastes in the Light of Information Structure and Textual Cohesion

Prof. Sung-Gil Jang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linguistic devices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and interpretation of textual meanings in Qoheleth. For this purpose, I now discuss several properties of the discourse: discourse forms structures and conveys meanings in a text. Here I argue that the discourse structure is illustrated by diverse discourse markers, and that signals of cohesion may help us to make an understandable continuity of sense in the text. In this respect, the main method this article used is textlinguistics. Textlinguistics is recently a rapidly expanding field by analytical methods and tools. Its scope embraces a broad of range of disciplines from linguistics to communication. As it stands,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ices of discourse markers and cohesion. The following things are mainly dealt with in this paper:

Section 2 begins with a brief examination of information structure in Qoheleth. Here I show that Qoheleth uses diverse rhetorical devices and that the book of Qoheleth is composed of two different categories of information, i.e., Qoheleth's observation and exhortation.

In § 2.2, I have illustrated a question: "Why are discourse markers used?" An answer is that discourse markers are cohesive devices. This paper presents that Qoheleth's preference discourse markers are not delimitation markers or introductory formulas. Instead, he prefers to use first person utterance devices such as אֲנִי אֶמְרָתִי (or אֲנִי אֶבְרָתִי) which bracket units of talk of Qoheleth.

In § 2.2.3, it emphasizes that a distinctive feature of grammatical cohesion is made of rhetorical questions, particles of existence/nonexistence, and conjunctive particles. Here, I have demonstrated how referential and lexical cohesion, which can be regarded as a textual property, contributes to making the textual unity created by cohesive ties. For instance, I have considered the fact that thematic continuity can be preserved in dialogues despite the disjunction of the storyline in Qoheleth. The speaker mainly uses אֲשֶׁר (89x), כִּי (87x), and

םג(58x) to keep text cohesiveness within a unit.

In the final section, this paper discusses co-relationship between lexical cohesion and conceptual coherence. The speaker provided explicit repeated lexical items such as הַבַּל (vanity), וְרָעוּת רוּחַ (striving after wind), תַּחַת הַשֶּׁמֶשׁ (under the Sun), מוֹת/מוֹתָם (death), טוֹב (good), חֵלֶק (prton), יִרָא (fear), חֵכְמָה/חֲכָמִים (wisdom)/חֲכָמִים (wise man) that belong to the governing lexical components in Qoheleth. Even though Qoheleth is not composed of well organized textual structure and thematic development, it is true that textual cohesive devices play an important role within a discourse to achieve thematic coherence. Thus, the translators or exegetes pay attention to realize the function and meaning of diverse discourse factors and devices.